

한라시론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요즘 팬스레 누군가가 눈에 밝힌다. 코로나로 너무나 다들 어렵다 할수록 더더욱 그렇다. 몇 해 전 돌아간 '푸른 눈의 돼지 신부' 맥그린치 신부님.

4·3과 6·25로 모두가 힘들던 50년 대 말 제주, 맥그린치 신부는 선교보다 더 급한 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시작한 목축사업, 사제복을 입은 신부가 배우부 앞 탕방로까지 오를 수 있다.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끼 한 마리로 값는 것. 어느새 돼지가 170마리로 불어났다. 좀처럼 바뀌지 않던 어른들도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것이 잘 알려진 이시돌목장의 탄생비화다.

중학 땀가 새다른 경험으로 마냥 신났던 양말짜이 실습. 철들 무렵 그 사연을 알고 나선 되레 가슴이 아려왔다. 육지 공장에서 사고로 죽은 어린 신자 소식을 건네 들은, 맥그린치 신부가 다니는 집을 떠나지 않도록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자 나섰다.

제주도 최초로 신용협동조합을 만든 이도 맥그린치 신부다. 계 파란으

로 자살한 신자가정의 비극이 계기였다. 주민들에게 무담보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던 일종의 마을자조금고, 한림신협은 그렇게 지역밀착금융 역할을 톡톡히 맡아왔다.

게다가 거의 모든 수익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재투자됐다. 병원, 요양원, 양로원, 유치원, 청소년수련시설까지. '이시돌'은 경제와 복지라는 두 개의 바퀴로 제주시 서부권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 준 그야말로 희망의 지렛대였다.

그랬을지 모르겠는 또 한 사람, 돈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다리아에타 신부. 50년대 청소년 다섯과 함께 난로를 만드는 울고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오늘날 3만명 이상을 고용

한 스페인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MCC). 그 몬드라곤을 머릿속에 품어 세상에 내놓고 한 생을 바쳐 키워낸 분이 호세 마리아신부다.

맥그린치와 호세 마리아, 주민들이 스스로 돕고 함께 일어서는 지역공동체를 꿈꾸고 몸소 일궈온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외딴 섬 제주와 구석진 바스크라는 변방에서 거의 동시대에 모습을 보였던 사회적 기업가(社會的 起業者, Social Entrepreneur)다.

오늘도 이시돌목장 테스폰 바로 앞에선 유기농 우유를 원료로 청년 몇몇이 갖가지 레시피를 선보인다. 사회적기업 우유부단. 감히 신부님 이름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싶다.

사설

가뜩이나 어려운데 물가마저 들쭉인다

긴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소비자 물가가 들쭉거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영하를 가장 많이 받는 채소류의 출하가 크게 줄면서 물가도 덩달아 오른 것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020년 7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4(2015년=100)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모두 0.1%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 상승을 주도한 품목은 신선식품지수는 114.98로 전월과 비교해 0.7%

올랐으나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습니다. 신선채소의 가격이 전월 대비 8.5%,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여러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제주지방의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장마가 49일간 이어지면서 제주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편집국 25시

맛불 작전



김도영
편집부 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일부터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를 1년간 연장하고, 백악이오름은 2년간 신규로 출입을 제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지난 6월 백악이오름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다. 오름을 찾은 많은 관광객이 보였고 각종 방송에 소개되며 관심받는 여행지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졌고 사진에 잘 담기는 배경을 찾아 정상부 이곳저곳을 옮겨다녔다. 또 '점프 샷'이라 불리는 공중에 뛰어오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뛰어오르기를 했다.

현장에서 인터뷰한 관광객들의 공통점은 오름의 생태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초지로 덮인 것이 아닌 붉은 송이층이 드러난 모습을 보고 '원래 오름은 이런 곳인 줄 알았다'고 여러 명이 말했다.

백악이오름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인기 있는 오름이 생겨난다. 방송과 SNS를 타고 핫플레이스가 되면 사람들이 몰린다. 자연휴식제, 탐방객 제한 등 근본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탐방법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뉴스-in

“부처 분위기 안좋다고 의기소침 안돼”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관련

○...제주도가 최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제주도의회가 벌써부터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고 격려.

5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현길호 위원장은 “부처가면 분위기 안좋다고는 하더라. 지사 발언을 갖고 정부적으로 판단해 지정하고 안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참언.

송영훈 의원은 지정에 위한 정부 설득 노력 개발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

(전남 1068·인천 838·경남 211·대구 114·세종 41·경북 37)로 (주)SK텔레콤과 협업해 지도표시 서비스를 개시.

8월 후기 학위수여식 취소

○...제주대학교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취소에 이어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후기 학위수여식도 취소.

다만 제주대는 졸업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위복을 대여하고 졸업 기념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 4곳을 설치할 예정.

코로나19 안심식당 전무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코로나19 안심식당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했으나 제주도내 안심식당은 전무.

이날 공개한 안심식당은 2309개

제주 초고령사회 임박 대비 서둘러라

제주인구 위기론이 저출산·고령화로 가속되면서 대책마련도 급한 상황입니다. 제주인구는 현 추세라면 향후 14년내 자연감소로 돌아서고, 10년후엔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으로 예측됩니다.

도의 '2017~2037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제주인구가 2017년 63만5000명에서 2037년 78만명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출생자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는 자연감소 현상이 서귀포시의 경우 3년전 시작됐고, 제주시는 2034년부터 나타날 현실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8만9000명에서 2037년 22만5000명으로 13만명 이상 큰 폭 증가합니다. 고령화사회(인구대비 노인인구 14%이상)를 2017년 맞은 이후 2027년 20%이상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 대응은 제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인수인 노년부양비도 2017년 19.9명에서 2037년엔 48.2명으로

2.4배나 늘게 됩니다. 제주지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는 사회·경제·교육·복지 등 모든 측면에 선제적 대비로 나서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도는 이미 지난 3월 '제주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한 후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청년 일자리 여건 조성 등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기본소득생자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는 자연감소 현상이 서귀포시의 경우 3년전 시작됐고, 제주시는 2034년부터 나타날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 대응은 제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인수인 노년부양비도 2017년 19.9명에서 2037년엔 48.2명으로

부고
박용현(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 본부장) 아버지 향교훈장 밀양박공 남진(향년 86세·前 제주4·3유족회 한림지회장)께서 서기 2020년 8월 4일 21시 13분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희순(향년 8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를 위로하고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서귀포시정소식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2020. 7. 28(화) ~ 8. 21(금)
지원대상: 2020. 7. 28(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 만18세 이하(2020. 1. 1. ~ 2013. 3. 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